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 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말씀과 함께 하는 설 연휴

### -11일·12일 양일간 성경통독사경회-

교회는 매년 초 설날 연휴를 맞아 온 성도가 교회에 함께 모여 한자리에 한마음으로 한 말씀을 읽는 성경통독사경회를 개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난 후 마귀에게 시험받으실 때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성경말씀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성도가 잠시 세상을 피해 교회에 모여 말씀을 통독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교회는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은혜 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의 범위는 신약전서로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한다.

참가비는 10,000원이며 11일 오전8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개최된다.

## 나눔의 집 운영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개장

우리교회는 지하3층에 나눔의 집을 개설하고 성도들과 이웃주민이 기증한 의류 등의 물품을 접수받아 저렴하게(1점 당 1,000원) 판매하고 있으며 그 수익금은 교회에서 각종 구제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현재 나눔의 집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개장하고 있으며 기증하실 물품도 항상 접수하고 있다. 제출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 송구영신 예배 녹화 비디오 테이프 신청 받는다

송구영신 예배 녹화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다. 지난 1월1일 드린 송구영신 예배 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하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받기 원하는 성도들은 교회 내 서점(테이프 판매소)에 신청 바란다. 가격은 10,000원이다.

## 교육위원회 월례회

### -목요일 저녁 7시, 부장, 부감, 지도교역자-

교육위원회는 오는 2월7일(목) 7시 교회 801호 비전 홀에서 식사 및 친교의 시간을 갖고 이어 102호 미스바 홀에서 이종윤 목사를 모시고 각 교회학교 운영 방침과 부흥전략을 토의하고 교회학교 수련회 성경학교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 다락방 공부 안내

오는 2월 6일(수) 다락방 공부 시간은 이종윤 목사의 특강과 6-7다락방장 윤숙희 집사의 "다락방 운영"에 대한 사례 발표를 갖는다. 교회는 2002년 다락방 공부는 각 교구 지도교역자의 담당 하에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매월 첫 주 다락방 공부는 이종윤 목사의 지도하에 전체교육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2002년도 교회학교 자치회 정·부회장 확정되다

2002년도 교회학교 자치회를 이끌 정·부회장이 확정되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 서	회 장	부회장
초등부	최민주	권강훈·최승우
중등부	임연주	이우용
고등부	김성국	임종현
대학부	김용호	신혜영
청년부	노창훈	나소연
사랑부	정승락	이종석
신혼가정부	정치은	옥중호(총무)

## 2002 장년부 겨울수련회

### -22일(금)오후8:00 ~ 23일(토)오전1:30-

장년부는 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여 2002년 겨울수련회를 갖는다.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22일(금) 오후8시에 모여 이종윤 위임목사를 모신 가운데 교회예배를 갖고 각 부별 소개의 시간,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서(3층), 부별 성장전략 수립 및 기도회 등을 갖고 23일(토) 새벽 1시30분에 마치게 된다.

### 비전2020후원자 명단

박철훈 (3구좌) 김광신(3구좌) 오경수(10구좌) 김사무엘(3구좌) 최종시 (3구좌) 하여수 (10구좌)임상현 (10구좌) 유관도 (100구좌)김구태(5구좌) 강윤숙 (1구좌) 고계현 (3구좌) 공진문 (3구좌) 권순단 (1구좌) 권장철 (5구좌) 김금준 (3구좌) 김남욱 (1구좌)김미향 (3구좌) 김석봉 (3구좌) 김숙자 (2구좌) 김순혜 (3구좌) 김용숙 (3구좌) 김운자 (2구좌) 김은혜 (2구좌) 김은태 (4구좌) (다음호에 계속)

## 2002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 · 성경학교

부서	일정	장소	강사	주제
유아부	2월25일	702호	이종윤목사·제명현도사	성령안에서 하나가 되어요
유치부	2월25일	706호	이종윤목사·이흥기전도사	하나님의 사람들
유년부	2월25일	102호	이종윤목사·이영희전도사	하나님의 사람들
초등부	2월25일	701호	이종윤목사·한미숙전도사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초등부
중등부	미정	미정	이종윤목사·유영국목사	하나님의 사람들
고등부	2월18일~20일	교회	이종윤목사·이태환전도사	하나님의 사람들
대학부	2월18일~20일	가평송동승기도원	이종윤목사·김은호목사	성령이여 보게 하소서!
청년부	2월28일~3월1일	양평미리네 캠프	이종윤목사·정원돈목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심을 따라!
장년부	2월22일~23일	교회	이종윤목사·고영민목사	성령이여 부흥케 하소서!

### (2월 행사)

- 2. 3 (주) 새가족 환영회 · 교육위원회
- 2. 10 (주) 전도위원회
- 2. 11 (월)~12 (화) 성경통독사경회
- 2. 17 (주) 교구위원회
- 2. 18 (월) 메이첸의 바울 신학세미나 -한국성경신학회
- 2. 20 (수) 2월 학습세례식
- 2. 24 (주) 장학헌금(주일예배 시) 교사헌신예배(찬양예배 시)
- 2. 27 (수) 육사 졸업 피송예배

이사야 강해

# 병어리 개들을 삼가라

(이사야 56장 9 - 12절)

개들에게는 짓으며 집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병어리 개처럼 입을 가지고 옳은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땅에 묻은 사람들입니다. 개들이 짓어서 양들을 깨우고 늑대를 놀라게 하지 못한다면 개를 양치기(shepherd)로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진 이스라엘 지도자는 사람들의 잘못을 결코 책망하지 아니하며 그 일의 결국이 어찌 될지 말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향해 물고 찢고 양들을 불안하게 하고 늑대와 도둑에게는 어떤 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운 목사

우리는 흔히 지도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중간지도자입니다. 대통령 역시 최고 지도자가 아닌 중간지도자일 뿐입니다. 최고지도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실현시키는 중간지도자입니다.

### 1. 지도자는 양떼를 돌볼 의무가 있다

양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목자가 그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양떼를 악한 길로 인도하면 양떼에게는 큰 해가 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책망과 비난을 받기에 마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이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9절).

'들의 모든 짐승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열국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에게 유대 땅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유대 땅의 목자들은 다 병어리가 되어서 제구실을 못하니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에는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서 곧 무너질 것이고 부패하여 망하게 될 것을 선지자는 비통한 마음으로 예언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으므로 쉽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2. 파수꾼이 타락하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

본문 10-12절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1) 직무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다 무지하며"(10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시각장애자와 같이 앞을 보지 못했고 따라서 무지했습니다. 제 길을 알지 못하므로 남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파수꾼이 되기에 적합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마 15:14).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맹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무지한 자는 가정을 인도할 수 없고 교회와 사회를 지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 그 어둠은 얼마나 크겠으며 선지자가 보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 보겠습니까?들의 짐승들은 양들을 삼키러 오는데 파수꾼들은 소경이 되어서 들짐승들이 오는 줄도 알지 못합니다.

####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11절).

몰지각한 목자들은 양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며 양들이 상처를 받는지 혹은 배가 고프는지 지도 모릅니다. 또한 지

식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행 3:15).

#### (2)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장시켰다

"병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10절). 개들에게는 짓으며 집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병어리 개처럼 입을 가지고 옳은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땅에 묻은 사람들입니다.

개들이 짓어서 양들을 깨우고 늑대를 놀라게 하지 못한다면 개를 양치기(shepherd)로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진 이스라엘 지도자는 사람들의 잘못을 결코 책망하지 아니하며 그 일의 결국이 어찌 될지 말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향해 물고 찢고 양들을 불안하게 하고 늑대와 도둑에게는 어떤 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 (3) 깨우려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안일을 사랑했고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10절)였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피로에 못 이겨 잠든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일부러 잠을 청하려고 누웠으며 '내 영혼이 편히 쉬자'(눅 12:19)라고 했습니다. '잠든 자자'(잠 6:10, 24:33)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잠에 빠지면 제일 먼저 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양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목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복입니다. 우리가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파수꾼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 (4) 탐심이 심하여 세상 것에 열렬한 자들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11절).

그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전 5:10).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알지 못하고 죽하지 않고 항상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빌 2:21).

이 말씀은 바울이 당대의 파수꾼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대중의 공동 관심사들은 비참한 정도로 소홀하게 되고 지체되고 있는 반면에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의견만을 선전하고 자기편만 내세우며 자기 가정만 일으키려고 하

고 모든 것을 제 마음에만 들게 합니다. 그들은 어디 있는지 자기 이익만 도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붙어 이익이 있거나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싸움도 불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만을 생각하며 어떻게, 무엇을 섬길 것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양떼에게는 무엇을 먹일 것인가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 (5) 쾌락만을 목적으로 삼는 쾌락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본질적인 것보다 술과 담배 연기 속에 자신을 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12절), 그들은 포도주 저장실을 서재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다.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12절).

그들은 또한 고의로 술에 취했습니다. 파수꾼을 서로 초대하여 과음하며 사악한 자들을 더 악하게 하고 그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술 취하면서 안심했고 평안이 계속될 줄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향락을 위해 마실 술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리하고 무절제한 생활로 수명과 죽음을 단축하고 재촉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약함이나 죽을 존재라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시 27:1),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눅 12: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쾌락주의로 인해 심령이 마비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줄 알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나온 소경 된 인도자, 병어리 개, 탐욕스러운 개, 쾌락주의자, 안일주의자는 잘못된 지도자 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14:18-19)..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도자 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포로 된 자에게 진리를 부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사람과 죄에 눌린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참 자유를 주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우리교회 김성철 장로는 <미국연방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지난 1월 24일 미 하원에서 '북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증언서를 발표했다. 미 연방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 종교의 자유의 증진책'을 주제로 연 이번 청문회에서 김성철 장로는 전 북한인민군 중위이자 탈북민인 보호운동본부 조사국장인 임영선 씨 등 탈북자들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였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노동당에 의한 종교말살**

북한은 1953년 6.25전쟁 휴전 후 1970년까지 북한지역에서 종교를 완전히 말살했다. 북한노동당이 반당 반혁명분자로 체포한 각종 종교인 수는 20만 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투철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5천여 명은 지하군사기지 건설장과 시베리아 벌목장으로 끌려가 1970년대 초까지 고역을 하다 대부분 숨졌다. 따라서 북한에서 195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종교도 접할 수 없었다고 한다. 탈북자인 임영선씨는 1980년 8월 평안북도 칠산군 대화도에서 군사훈련교육을 받을 당시 월대 무인도이던 이 섬에 1950년대에 2천명의 목사 등 기독교인들이 끌려와 강제 노역하다 대부분 사망하고 50명 정도만 살아남아 고역에 종사한 것을 목격했고 수개월 후 1980년 12월에 다른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증언을 했다.

**2.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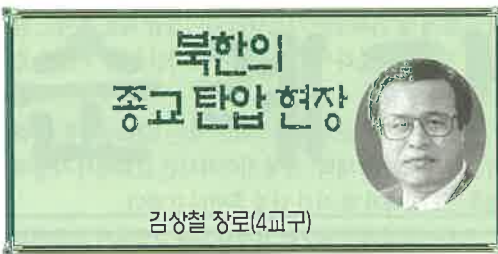
북한의 김정일은 1971년 발표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서 김일성을 신으로 선포하고 이것을 부정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정치범수용소로 끌고가 결국 사망케 해왔다. 이 <10대 원칙>은 김일성 동지의

한지 작가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전광영 집사는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2001년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므로 생애 최고의 해를 맞았다. 그는 이 상을 받으며 가장 먼저 무명의 시절을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광영 집사 가정은 21년 전에 돌아간 할머니께서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시집오시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세월과 믿음은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고 자신의 믿음에 관해 겸손하게 말한다.

벌써 올 한해의 전시회 스케줄은 거의 다 잡혀 있다. 전광영 집사님은 해외 전시가 있을 때면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머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세계 유수한 작가들이 모인 이곳에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후원을 힘입고 왔음을 고백한다.

그는 지금 한지 작가로 유명하지만 본래는 유희를 그렸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한약방에 배달러 있는 한약봉지를 보며 한국적 정서를 깨닫고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 미술계에 승부를 걸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너무 앞선 탓인지 당시에는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1995년 다시 한지 작품을 발표해 드디어 그의 작품이 풍기는 서정적이고 지적인 분위기가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는 이미 세계 미술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전시회를 가졌고 수많은 해외 아트페어에서 전시된 작품이 매진되는 사례가 잇달아 일어나 미술계는 이를 두고 이변이라고 말한다. 그는 오히려 외국에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상들은 그의 작품을 소장하려고 앞다투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한 화사들의 로비에서 어렵지 않게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다.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해야 한다.'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등 김일성-김정일을 철저히 신으로 묘사하고 있다.

**3. 평양의 교회는 '정치적' 행사장**

북한노동당은 1987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교교회, 붕수교회, 장춘성당을 건립하였다. 그 외에도 문화 유적물로 보존해오던 평양 대성산의 사찰도 형식적으로 열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인들이 들어와 예배할 곳을 찾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행사장이지 북한주민들의 종교 복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4. 기독교인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

탈북난민 보호운동본부는 2001년 5월 16일 UN본부에 21개국 11,800,495명이 서명한 서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청원서는 유엔이 즉각 재종탈북자들을 보호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0만 명이 넘는 북한인들이 기아와 정치적 박해 때문에 탈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난민들은 대부분 유리방황하며 처참한 환경에서 강제송환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극심한 가난 속에 살 권리가 없이 지내고 있다. 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고문을 당하고 강제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당하고 있다. 특히 북한관원들은 북한으로 돌아오는 탈북자 중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다. 기독교인인 사실이 발각되면 즉각 처형되거나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완전 통제되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

**5. 탈북난민 보호운동본부의 제안**

(가) 북한의 종교탄압 정황은 극비사항이므로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황정업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와 김덕홍 전 북한 혁명역사연구소장은 명백하고 포괄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제1차 증언자이다. 그들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종교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제 종교계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불차 전 달은 적십자의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노동당간부들이나 주민들은 종교계의 지원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다) 중국 내 탈북자의 상당수가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조선족 교회 또는 기타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그들을 체포하여 강제 송환시켜 그들을 박해받게 함으로써 국제협약을 위배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중국정부에 의한 탈북자 강제송환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정리: 편집부 (김민철)



전광영 집사님은 그 때마다 "너는 광영이를 낳았지만 그의 제주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의 공부를 막지 말라"고 아버지께 말씀하시던 할머니가 생각한다.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난 전광영 집사님은 사업으로 번성하는 가정에서 2대 독자로 태어났다. 완고하신 부친은 그가 당연히 집안의 가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았고 그가 그림을 고집하자 아버지와 이들의 인연을 끊겠다고 하였다. 실제로 그는 미술 대학을 다니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아이들의 유급까지 걱정해야만 했다.

그는 이제 국내에서 우뚝 선 화가가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죽음까지 생각했던 무명 시절이 있었다. 하나님은 유학시절 예배 중에 "지금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자여, 너는 내가 택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는 자로다"라는 말씀으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여기까지도 오셨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을 나누어 줄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용히 이 일을 진

행하고 있다.

전광영 집사 부부는 1998년에 서울 교회에 등록했지만 이종훈 목사님과과의 인연은 그의 미국 유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30대 초반으로 미국에서 공부하시던 이종훈 목사님은 미국 필라델피아 로간 지역에 교회를 세워 목회를 하며 초기 이민자들의 슬한 역경과 어려움을 돌봐주고 있던 터였고 자신은 유학생 신분으로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신발장 정리부터 이것저것 봉사했었다. 특히 영어가 안돼서 무고하게 법의 체계를 받는 이들을 대면해 주며 필라델피아 지역 이민자들의 구심점이 되었던 그때의 이종훈 목사님을 그는 무척 존경했었다고 말한다.

전광영 집사님은 1973년 김인숙 권사와 결혼을 하고 슬하에 아들 용진, 용운, 용천 그리고 막내딸 수진을 두었으며 그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를 이어 광고 디자인을 공부한다. 그는 요즘 부쩍 3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하며 묵묵히 시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성격이 급한 자신을 위해 항상 사랑과 기도로 내조하는 김인숙 권사가 감사하기만 하다. 전광영 집사는 부인과 함께 임마누엘 찬양대를 섬기며 노래는 잘하지 못하지만 찬양이 너무 좋아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린다고 한다.

"나의 손주야 너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권철을 우리는 할머니의 음성을 기억하며 그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족히 여기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좋은 자식이 되게 하옵시고, 김인숙 권사에게는 좋은 남편이 되게 하옵시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편집부(허숙)

교역자 가족을 찾아서 ②  
고경선 목사 가족편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은 고경선 목사님 가정의 18번째 찬양이다. 이은희 사모님과 성민(7), 하영(4), 하진(3) 다섯 식구는 다같이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신다는데, 이 찬양만 부르면 온 가족이 뛰놀며 울동을 하게 돼 웃음바다가 된다.

회복하기로 유명한 목사님 가족의 자랑을 부탁드리자면, 동생들을 잘 돌봐주고 놀아주는 대견한 맏이 성민이는 먼 시골에 갔다가도 어린이 예배에 꼭 참석하겠다는 열심을 내어 부모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말씀과 찬양을 사모해 아버지를 이어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다고 한다. 두 아기 아가씨들은 아빠가 돌아오면 두팔을 벌리고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오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세 아이들을 세상의 어느 엄마보다도 훌륭

하고 밝게 잘 키워주는 사모님이 아이들을 재운 후에도 밤마다 기도도 내조하시고 계시기에 목사님은 늘 피곤한 줄 모르신다고 한다.

목사님이 서울교회에 부임하신 것은 1999년 6월, 흥해 작전이 시작하는 새벽! 전에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사임예배를 드리자마자 몇 시간 남짓 후했다고 한다.

목사님은 흥해작전으로 시작된 서울교회와의 첫출발을 매운탕 맛에 비유하셨다. 진하고 확실한 그 첫 느낌이 인상적으로 남아 지금까지 목사님을 지탱해 주고 있다고 한다. 부임 후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 2년 반 동안 청년들과 함께 호흡했던 일과 지난여름 치양마이로 떠났던 27명의 소수정예 단기선교, 매주 편집실에서 열띤 편집회의를 가졌던 순례자에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느끼게 된 것도 함께 견뎠던 흥해의 열매가 아니겠는가고 돌아보셨다.

서울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신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청년부도 있지만, 하영이와 하진이를 빼놓을 수 없고 목사님 가정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는 매주일 저녁 즈음의 한 때라는 것이다. 찬양예배를 드리고 온 식구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할 무렵, 정성껏 섬기고 예배드리는 주일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 아이들의 시끄러운 장난소리, 아내와 나누는 이야기, 오붓하고 평온한 주일 저녁이라고 하신다.

고목사님은 2002년부터 교육 5국(장년1부-5부)을 총괄하시며, 경로대학과 상조위원회, 5.6교구를 담당하시고

있다. 올해 교육 5국의 비전은 100만으로의 부흥이다.

어린이 성경을 읽으며 드리는 가정예배 시간마다 가족 모두가 받은 달란트 대로 섬기기를 기도하신다는 고목사님은, 서울교회 성도들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름 받은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늘 함께 기도하신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에 충실한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기도만이 미움도 시기도 이기게 하며, 기도함으로 사랑도 생기고 능력도 힘입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사하게 되고 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잊지 말자는 말씀이다. 또한 비오는 산 속에서 얼홀 동안, 매일 아침 말씀묵상으로 그날 그날의 시험을 이기고 귀한 열매를 맺고 돌아온 단기선교팀이 오직 말씀으로부터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아 승리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됨만이 영적 견고함의 기초가 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교회가 주안에서 참된 부흥을 허락 받음을 기억하자고 말씀하셨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심지 않은데서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심을 때 서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어 드릴 수 있음도 늘 깨어 잊지 말자고 당부하셨다.

인터뷰 내내 곁에서 소곤대던 둘째 하영이와 고목사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채우심을 느끼며, 유난히 "행복"과 "감사"를 연발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시길 기도한다.

편집부(나소정)

준비된 찬양과 연습된 찬양  
노론환 장로(11교구)



2002년 위원회에 듣는다  
임훈규 장로(구제위원회)



①천국 시민의 양성. ②만민에게 전도. ③빈약한 자 구제. 이세가지는 서울교회가 설립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한 우리의 사명이자 목표입니다.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없는 은혜 가운데 축복 받은 우리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통하여 구제의 사명을 몸소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병약한 자, 낙심하여 방황하는 자,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자,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고통 중에 심령이 곤고한 모든 이들을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제는 단순히 물질로만 돕고 후원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눔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의미를 지닌 구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서울교회 모든 교우들 앞에서 구제위원회는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함으로 서울교회 부흥발전에 힘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혼자서 누리지 아니하고 비록 여유가 없어도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으로 기도하며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 된 모습으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위로가 필요한 이를 찾아가서 위로

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2년도 서울교회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눔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고 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히브리서:13:16>

동정

- 이종운 목사는 4일(월) 한국교회혁신연구원 동문회 임원 간담회, 5일(화) 서울동지역 남선교회 연합회 설교, 8일(금) 서울 강남노회 임원회를 갖는다.
- 이사: 이명재 · 김현숙성도(12-4), 성남 분당구 약림동 장미마을 802-802 12교구 031-704-6197
- 이동근 김경미 성도(1-14) 특남
- 김희진 집사의딸 신주현성도(7-7) 특녀
- 개업: 송경점 집사(1교구) GTG(409-5470)

☞ 금주의 식사제공: 김태상 · 조숙자 가정 (범사에 감사)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2년도 성경학교 · 겨울수련회를 위하여
2. 구정(설)에 민족적으로 지을 죄 용서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